

특정감사

감 사 보 고 서

－ 수출자원사업 추진실태 －

2017. 2.

감 사 원

2-②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미연계 등 운영 부적정

산업부와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[표 18]과 같이 원산지관리시스템¹⁾(산업부: FTA-KOREA, 관세청: FTA-PASS)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.

[표 18] 원산지관리시스템 비교

구분	FTA-KOREA	FTA-PASS
구축연도	2011년	2010년
관리기관	산업통상자원부	관세청
구축·운영기관	KT-NET	국제원산지정보원
구축·운영비	구축 비용: 26.8억 원 시스템 고도화비용: 9억 원	구축 비용: 6.7억 원 시스템 고도화 비용: 33.6억 원
주요 기능	수출입 물품 정보 관리,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물품정보 제공, 자사물품 HS코드 조회 및 관리, 원산지판정 관련 증명서 발급	

자료: 산업부, 관세청 제출

위 두 개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비용부담²⁾으로 인해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힘든 중소기업³⁾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,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이 동일하다.

따라서 산업부와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준정보와 원산지확인서,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정보를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원산지 증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.

그런데 산업부와 관세청은 위 두 개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

- 1) 원산지판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구매정보, 자재정보, 생산공정 등 기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그 산출물인 원산지확인서,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정보의 기업 간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
- 2)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UBI-Origin(유비포럼), K-Origin(삼정KPMG), K-FTA(LG히다찌) 등 대기업 또는 회계법인이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, 도입비용이 고가일 뿐 아니라 FTA 추가·개정 사항 반영 등 사후지원 비용을 수요기업이 부담
- 3)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

등록 정보를 호환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각각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다.

그 결과 [표 19]와 같이 기업들이 위 두 개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모두 사용하거나, 기업 내부 사정 또는 고객사·협력사 등의 요청⁴⁾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 저장한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.

[표 19] 원산지관리시스템 중복 사용 업체 및 활용 현황(2016년 8월 기준)

(단위: 개, 건)

중복 가입 기업 수	중복 활용 기업 수	FTA-PASS 활용형태별 실적			FTA-KOREA 활용형태별 실적		
		증명서 발급	확인서 발급	원산지 판정	증명서 발급	확인서 발급	원산지 판정
1,304	79	210	4,844	675,304	120	2,239	8,545

자료: 국제원산지정보원, 산업부 수출자료 재구성



관계기관 의견 산업부와 관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공동으로 시스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의를 거쳐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률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KOREA, FTA-PASS) 간 원산지정보를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4) 수출품목의 부품 또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사·협력사가 동일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